

장수 가야 금제귀걸이 · 철제고리칼 출토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열어

장수군에서 철제고리칼과 함께 백두대간 서쪽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가야시대 금제귀걸이가 출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수군은 1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실시된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발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금으로 만든 장식 귀걸이와 쇠로 만든 큰 칼 등 많은 토기류와 철기류 등이 공개됐다.

이 중 금제 귀걸이는 원형의 장식이 달린 것으로 백두대간 서쪽지역에서 처음으로 출토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철제 고리칼의 손잡이 끝 장식 형태가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삼고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3기의 무덤은 2017년 고분군 분포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7기 중 3기로서 2018년 6월에 시작해 9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3기의 무덤군에서는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 11기와 토광묘(土坑墓) 12기 등이 확인됐고 가야계 토기류와 철기류를 비롯해 금제 귀걸이, 철제 고리칼 등 130여 점에 이르는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2호분에는 2기의 석곽묘가 나란히 축조됐으며 1호 석곽묘에서는 금제 귀걸이와 옥 등의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실시된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현장에서 철제고리칼과 가야시대 금제귀걸이가 출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신구와 가락비취가 출토됐고 2호 석곽묘에서는 철제 고리칼, 쇠화살촉, 쇠낫 등의 무기류와 재갈 등의 마구류가 출토돼 한 방면에 여성과 남성의 무덤을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3호분에서는 석곽묘 7기와 토광묘 11기가 조사됐으며 장수가야를 기반으로 하는 재지계에 대가야와 소가야, 신라계 양식 등의 토기가 함께 부장돼 당시 장수가야가 주변 세력과의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짐작케 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한 방분 내에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토광묘를 배장한 장묘의 형태가 최초로 확인됐으며 함께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주변지역의 여러 세

력들과 교류관계가 있었음을 인식시켜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다.

또 이번 발굴조사가 이뤄진 3기의 무덤 이외에도 주변에 봉토가 남아있는 큰 무덤들이 더 분포하고 있어 추후 발굴조사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장수지역의 가야문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가야의 중심에 장수가야가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지속적 노력을 통해 국가사적 추진은 물론 문헌이 미비한 장수가야의 옛 이름 찾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연극계 미투’ 이운택, 징역 6년... “단원들 복종 악용”

미투 운동 사건 중 첫 실형 선고 사례

단원들을 삼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운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는 19일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줘서(성추행인줄) 몰랐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한 게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는 안 된다”며 검찰의 보호감할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자 배우들을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삼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



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행위를 제외한 피해자 8명에 대한 이 전 감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럭셔리 트래블 마트 2018’을 개최했다.

“하루 130만원 쓰는 외국인 관광객 모시자”

문체부 · 관광공사, 고유 콘텐츠 발굴 · 상품 개발 박차

한국 방한 관광객 시장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저가 관광을 지양하고 고품격 럭셔리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시장의 질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럭셔리 트래블 마트 2018’(KLTIM: Korea Luxury Travel Mart 2018)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인 KLTIM은 고급호텔, 한옥호텔, 전통공연과 체험시설, 스파·웰니스 시설, 뷰티&패션업체, 갤러리&박물관 등 국내 70여 럭셔리 콘텐츠 업체가 참가했다.

해외에서는 아시아·중동·유럽·아메리카 지역 17개국에서 럭셔리 상품 판매 여행사, 아메리카 지역 최대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 ‘시그니처’ VIP 마케팅 관계자 등 바이어 60여 명이 동참했다. 관광공사 21개 해외지사가 럭셔리 방한 관광 상품 개발 실적과 계획 등을 토대로 엄선했다. 행사는 상담회, 세미나, 문화 체험, 해

외 바이어 현장답사 등으로 구성했다. 상담회는 럭셔리 콘텐츠 참여업체(셀러)와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체·해외 초청업체(바이어) 간 비즈니스 상담회(B2B)로 전일 진행했다.

세미나는 럭셔리 관광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가 나서 세계 럭셔리 관광 트렌드를 소개하고, 국내 럭셔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문화 체험은 ‘흑자도에’ 김시영 명인, ‘술송주’ 박흥선 명인, ‘허씨 비단’ 허호명인 등 지역 명인·명사와 지자체가 나서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희 관광공사 한류관광팀장은 “전 세계 럭셔리 관광객 소비 규모는 세계 관광 수입의 약 20%다. 하루 평균 최소 1000유로(약 130만원)를 지출하는 고부가 가치 시장이다”며 “KLTIM 개최가 한국 럭셔리 관광 시장이 성장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고유 콘텐츠 발굴과 관광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인터파크 ‘한가위, 책 보세요’... 혜택줍쇼 · 세트대전

인터파크도서가 추석 이벤트를 벌인다. 28일까지 ‘한가위 혜택줍쇼’를 통해 도서상품권 최대 9000원어치를 준다.

모든 분야 도서를 2만원 이상 구매하면 초콜릿을 선물한다. 20~26일에 책을 사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10월15일까지 ‘한가위 한가득 세트대전’도

계속한다. 이문열 삼국지 세트, 용선생의 시골벽적 한국사 세트, 신과 함께 세트 등 문학부터 유아동, 만화, 인문교양, 외국 도서, 중고도서까지 분야별 MD가 고른 세트 도서들을 모았다. 이벤트 대상 도서를 3만원 이상 구매하면 북 트레이, 접이식 케이스, 레인 백 등 인터파크도서 굿즈를 증정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